

# 한경 BUSINESS



행복한 노후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기  
일본의 막오른 취업전쟁 현장 리포트  
인터넷 검색시장의 뉴페이스 '블레코'

## 2010 베스트 PB센터

21세기 서비스 꽃 마이스(MICE)산업이 뜬다  
증권사들이 선물업 시장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  
내년 국내 주요 그룹들 핵심 이슈 미리보기



이효율 풀무원식품 사장 인터뷰  
“한국 자연식품 세계시장서도 통한다”



값 3,500원



경제비즈니스 2010년 11월 17일 제780호 (매주 1회 발행) (주)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 대표전화 02-380-4841 | 등록번호 다 4579 | 1995. 10. 24 |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 금요일 기준 | 1페이지 제189호



내년도 베트남 투자 환경 전망

#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

어느덧 계절이 11월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은 다가오는 새해인 2011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1억 명의 소비 시장을 가진 베트남에 이미 투자했거나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베트남의 내년도 외국인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환경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법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이 문제가 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위 두 요소 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령 적용 기준 엄격해질 전망

우선 법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 측면을 살펴보자. 베트남은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외국인이 투자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

증서 발급 절차에 대해 예전보다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내국 법인에 비해 외국인 투자 법인에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등 내부 의사결정 기관에서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을 지배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이 지난 6월 초 은행의 자기 자본비율(CAR: Capital Adequacy Ratio)을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권고 기준인 8%에서 9%로 올린 것처럼 제반 법령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개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제 기준을 지향하는 법령 개정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개정하는 경향은 최근 몇 년 사이 한

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베트남 주재 상공회의소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요구 사항 등을 마련해 베트남 정부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그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액 등 외국인 투자

베트남은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외국인이 투자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 보충한 측면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단체의 공식적인 요구를 외면해 외국인 투자액이 감소하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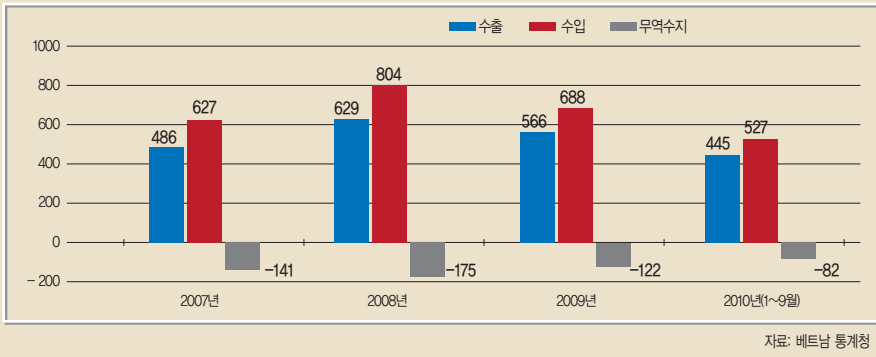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제도 개선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몇몇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령상으로는 당초 사업 계획보다 12개월 이상 사업 수행이 지연되면 관할 기관이 재량으로 해당 외국인 투자 사업의 투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런 규정이 제대로 적용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즉 예전에는 12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된 것만으로 외국인 투자 사업의 투자 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별로 없고, 사업 지연 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 또는 10년이나 15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투자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업 추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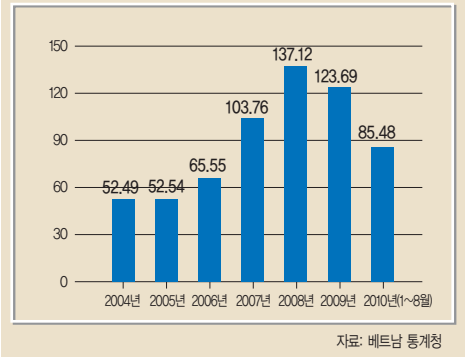
베트남에 투자할 때 법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흐름을 잘 살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 베트남 무역수지 동향



## 베트남 설비재 수입 동향



1년 반이나 2년 정도 지연되면 바로 외국인 투자 사업의 투자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및 이에 따른 베트남 화폐인 동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일 것이다.

베트남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7.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당초 목표치 6.5%를 웃도는 6.7%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보고서에서 베트남 경제는 세계금융 위기 이후 급속히 회복되고 있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과 일반 가정이나 기업이 금과 달러화를 보유함으로써 베트남 동화에 압력을 가하는 것 등은 베트남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국영기업의 경제 기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설비재 수입이 200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

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가 베트남 내국 기업이 아닌 한국 등 이미 산업 발전을 이룬 국가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 기업이 구축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앞으로 다른 선진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비교적 안심하고 생산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4월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후 올해 연말까지 2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베트남 호찌민시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2007년 착공한 반도체 조립 공장을 11월에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가 계속되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고 현재 최고치에 이르고 있는 베트남 동화 환율도 점차 하락해 중기적으로 동화 가치가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초 공산당 전당대회 주목

마지막으로 향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정치다. 내년 초에 제11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5년마다 개최되며, 160명의 위원과 2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 베트남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위원을 선출한다. 중앙위원회는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 전당대회 결정 사항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업무 지침을 작성한다. 더욱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정치국(Poliburo) 국원을 선출하는데, 현재 정치국은 15명의 국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국은 베트남 경제 건설과 관리, 국가기관 조직, 외교 안보 등 중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산당 및 행정기관 고위직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어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들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방국가에 대한 견문이 넓은 이른바 신세대가 권력층으로 대거 진출하면 친서방적 경제정책이 중심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리(Ly) 왕조에 의해 서기 1010년 수도로 정해진 이후 1000년이 흐른 '정도 1000년의 해'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기념해 지난 10월 1일부터 열흘 동안 245회의 국내 예술단 공연 및 38회의 해외 예술단 공연을 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행사를 바탕으로 산업국가를 향한 힘찬 도약을 꾀하고 있다. 내년에는 베트남의 도약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더 나은 외국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변회경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호찌민시 사무소장(현)